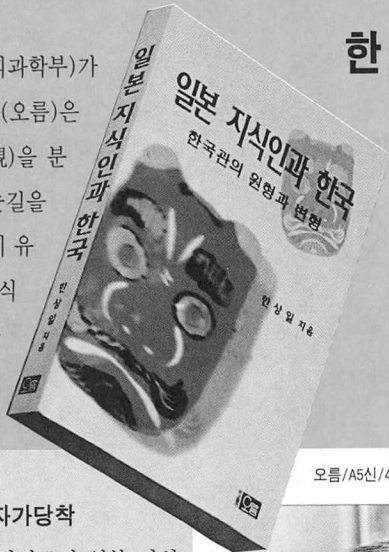


한 일본전문가가 분석한 일본 지식인의 한국관

《일본 지식인과 한국》 펴낸 한상일 교수

“십여년 전부터 오피니언 리더로서 일본 지식인들이 자국민의 한국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있게 연구해왔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한국 이미지는 지식인들에게 영향받은 바가 크기 때문이지요.”

한상일 교수(57, 국민대 사회과학부)가 펴낸 《일본 지식인과 한국》(오름)은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관(觀)을 분석한 연구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이 책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현재까지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원형'과 '변형'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오름/A5신/462면/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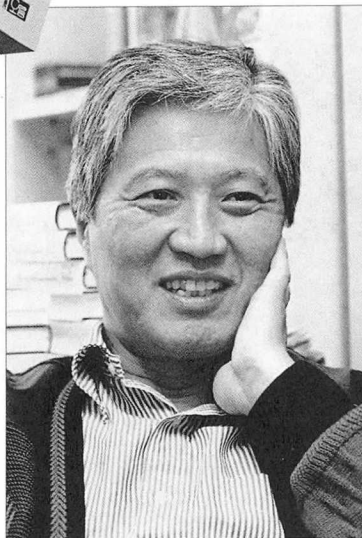
일본 진보적 지식인들의 자가당착

“십여년 전부터 오피니언 리더로서 일본 지식인들이 자국민의 한국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있게 연구해왔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한국 이미지는 지식인들에게 영향받은 바가 크기 때문이지요.”

한교수가 일본 지식인의 한국관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한교수는 《세카이(世界)》라는 잡지를 만났다. 2차대전 직후 창간된 《세카이》는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만든 잡지로, 남북한 관련 기사를 많이 다뤘는데, 특히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기사가 많아 국내에서는 금서였다. 창간호부터 1979년까지 《세카이》에 실린 한국 관련 기사만 복사해 국내에 들여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은 부패하고 빈곤하고 불안한 사회로, 북한은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로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주의를 내건 《세카이》가 남과 북을 선악의 대결관계로 설정하는 이중적 모순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논조는 1960~70년대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논문이 〈전후 진보적 지식인과 한국〉. 한교수는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관을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틈틈이 자료를 수집하고, 꾸준히 논문을 써나갔다. 특히 전후 일본인들의 한국관이 메이지 유신 이후 활약한 지식인들



한상일 교수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근대 일본 지식인을 연구했다. 그 결과 찾아낸 네가지 한국관의 원형이 이 책의 1부에 수록된 ‘후쿠자와 유키치의 침략지배관’ ‘타루이 도키치의 위장 연대관’ ‘요시노 사쿠조의 식민지치관’ ‘아나기 무넨오시의 선린우호관’이다. 이 가운데 요시노 사쿠조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견해와 사뭇 다르다.

“요시노 사쿠조는 다이쇼시대에 도쿄대 교수를 지낸 정치사학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유주의자이자 인본주의자요, 일본 민주주의의 기수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그는 일본의 조선식민통치를 비판했는데, 사실은 통치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정책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식민통치를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이죠.”

한교수는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이상적인 원형으로 아나기 무넨오시의 선린

우호관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아나기는 순수한 애정과 진지한 통찰로 조선을 바라봤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광화문을 허물려고 했을 때 이를 막고, 조선 예술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자국에 소개했기 때문이다.

한교수는 한국관의 ‘변형’으로 전후 보수지배 계급의 한국관, 협한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수정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본을 평가해야 한다”

“한국관의 원형은 지금까지도 자유주의사관이나 사회의 주체논쟁 등 다양한 변형태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사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아마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아시아의 피해국에 사과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를 겪을 겁니다.”

그는 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감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진단한다.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해야 하는데, 특수한 관계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도 해당한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좋아하지만, 막상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비판하게 되는 감정의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책은 그가 일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진지한 학문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 김정은 기자